

짓밟힌 외국인노동자의 집

병든 네팔인부부 강제연행...저지 목사도 구속

96.6.5

성남/김기성 기자

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이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온 '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'이 탄생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.

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주민교회 안 외국인 노동자의 집(소장 김해성 목사·37)에 찾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네팔인 로전(34)과 부인 디르타(34)를 국외로 추방하기 위해 붙잡아 승합차에 강제로 실었다.

또 경찰은 이 부부의 연행을 막은 이 교회 담임목사인 김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해, 수용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'보호자'를 잃게 만들었다.

지난 94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수도권 공장들을 전전해온

로전 부부는 이날 임신중절 수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돌아오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승합차에 삼시간에 태워진 뒤 겁에 질려 눈만 깜빡거렸다.

그리고 두 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께부터 노동자와 학생들이 차를 가로막고 농성을 시작하면서 길고 긴 대치가 이어졌다. 이렇게 8시간이 흘렀을 때 경찰 5백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대학생·노동자들과 충돌했고, 이들이 탄 차는 이 틈을 타서 시위대 사이를 빠져나가 급히 서울로 향했다. 캄캄한 골목길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뒤로한 채 승합차에 실려가며 힐끔 힐끔 차창을 바라보던 이들 부부는 남아 있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녕을 바라는 듯 손을 흔들며 보였다. 로전 부부의 '코리언 드림'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.